

## A Daily Bread

בִּיאָה

날짜: 5786년, 10월 18일 (2026년 1월 7일)

토라 롬: Shemot (이름들)

주제: 거부 된 돌

출애굽기는 구속을 시간과 숨겨짐, 그리고 내적인 정렬을 필요로 하는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쉐는 열방의 권력에서 발상한 죽음의 칙령 아래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즉각적 대응이 아닌 약속의 유지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는 마치 출애굽을 미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의 더 깊은 차원에서 정검하면, 그 자체된 시간들이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람반은 여호와께서 고난을 심화시키시는 이유를, 그들의 구원이 정치적 성취가 아니라 분명한 여호와의 계시로 인식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시간적인 지연은 긴장을 낳아 모쉐로 하여금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출 5:22)라고 부르짖게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24-25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아신다는 네 단계의 인식을 통해 지연 된 시간들 가운데의 침묵이 방관이 아니라 절제된 기다림임을 보여줍니다. 네치브는 이를 역사적인 성숙을 도모하는 목적 있는 침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죠하르는 이 지연시간을 형이상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유배된 시공간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그 이후의 계시를 가능하게 하는 긴축(din)의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너무 일찍 드러나면 현실이라는 그릇이 역량이 부족하여 빛의 광체를 감당치 못하고 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도달하기까지 모쉐는 숨겨져야 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압제로 신음하게 되며, 바로의 심장은 더 완고해져야 했습니다. 압제의 한 체계가 스스로의 불안정을 드러낼때에야 숨겨진 빛이 손실되지 않고 온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를 찌운(시온)에 놓인 시험된 모퉁잇돌의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사 28:16). 료쉬는 이 돌을 언약적 신뢰 위에 세워진 지도력으로 해석합니다. 말빔은 이를 압력에 직면하면 무너지고마는 정치적 쇼와 대조합니다. 죠하르는 이 모퉁잇 돌을 신적 권능의 흐름이 세상에 안정적으로 부어지는 통로인 예소드(Yesod;반석;중생)에 대응시킵니다. 위에서 부으시는 신적 권능이 흘러내리는 영적인 지점이 똑 바르게 정렬되지 않으면 빛인 축복은 흘러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조롱하는 것과 냉소적인 태도들의 통로를 차단해 버리고, 결속력을 강화하도록 경고하십니다(사 28:22).

『타냐』를 중심으로 한 하씨딤의 가르침은 이 구조를 인간 내면의 심리로 해석합니다. 『타냐』는 참된 자유는 내면의 정화를 요구한다고 가르칩니다. 우선적인 내면의 변화 없이 주어지는 해방은 또 다른 속박이 됩니다. 파로오 (바로)와 모세의 갈등은 축소된 의식 (mochin de-katnut)과 확장된 의식 (mochin de-gadlut)의 대립을 반영합니다. 참된 구속은 “내면의 파로오”, 곧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 자아”가 거룩하신 영에 순복 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미디안에서의 모쉐의 세월은 지도력을 키우기 위하여 겪은 훈련이 아니라, 비틀(bittul; 겸비, 자아의 비움) 훈련이었습니다: 비틀(בִּיטָל / Bittul)은 영혼의 개체 그 각 성정의 조각들이 촛점없이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분열된 층의 세계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각 부분이 경이롭도록 광대한 전체 속에서

## A Daily Bread

בִּיאָה

자신에게 주어진 위대함을 발견하는 조화로운 세계에서 진정한 삶을 선택할 것인지의 그 차이를 분별하여 줍니다.

이로써 참된 구속이란 즉각 대응이 아니라 지체된 시간 가운데 비틀의 경지에 도달한 보존력을 통해 진행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모쉐는 압제적 지배가 아닌 인애의 돌봄을 배우며 숨겨짐이라는 은폐 속에서 준비되십니다. 미드라쉬 라바는 여호와 엘로힘께서 교만함이 참된 “구속”의 미덕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낮은 자를 택하신다고 강조합니다. 죄하르는 이러한 은폐를 짐춤 (tzimtzum), 곧 참된 자유를 위하여 수축함으로써 창조된 공간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압제 없이 곧 비틀의 경지로 자아를내려놓는 진정한 승화 된 내적 준비 없이 얻은 자유는 또 다른 애굽을 낳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2 장은 이 토라의 기본 구조를 상징적으로 반복하며 기록합니다. 아기는 권력의 궁전 밖에서 보호되었고, 폭정의 왕은 두려움과 폭력 속에서 스스로의 힘을 소진시킵니다. 성경 기록의 비밀들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관점에서 정검 할 때에, 마태복음 2 장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직 된 거짓 권력이 붕괴되고 참된 권위가 숨겨짐 가운데 조용히 성장해 준비되는 토라의 기본적인 패턴을 다시금 면밀히 보여 줍니다.

출애굽기 6:1은 결정적 전환점이 됩니다. “이제 내가 파아로에게 행할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선언은 “은폐된 숨겨짐”에서 “밝혀진 계시”로의 이행을 선포하는 소리입니다. 뇌시는 ‘이제’를 신성한 방식의 “전환의 시기”로 읽습니다. 하씨딕 혼인들은 이 순간을 “그릇이 준비 된 때”로 해석합니다. 참된 “구속”이란, 지연 된 압제의 시간이 끝났을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자아가 비틀에 이를 때입니다.

성경의 구속은 곧, 참된 자유를 “맞이 할 내면의 준비”가 되었을 그 때 시작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구원은 사람의 열심으로 일으키는 즉각적 대응이나 혁명적 사건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엘로힘께서 시작하신 계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Shalom.